

###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 <31> 이승(二乘)과 열반

선가에서는 무명을 타파해야 깨달음을 얻는다고 한다. 무명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막장구름과 같다. 무명에서 비롯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연기법 자체가 공성(空性)임을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온갖 번뇌가 비롯되므로 무명을 '모든 번뇌의 근본'이라 말하기도 한다.

번뇌란 사람들의 깨끗한 마음을 오염시키는 모든 시비와 분별이다. 불교에서 마치 막으로 성취해야 할 것은 '깨달음'이요 '열반'인데, 이것을 성취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시비와 분별이 다 번뇌가 된다. 번뇌는 그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생이 번뇌에 묶여 꼼짝 못한다는 뜻에서 '결박(結縛)'이라 부르고,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마음을 더럽히는 뜻으로 '더러운 티끌(垢塵)'이라 하기도 한다. 또 바깥에서 잠시 다니다가는 손님과 같은 것이라고 하여 '객진(客塵)번뇌'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무명조차 번뇌라고 한다. 이런 번뇌들이 생기지 않는 것, 이것이 열반임을 <선가귀감> 31장에서 말한다.

斷煩惱 名二乘 煩惱不生 名大涅槃  
번뇌를 없애 나가는 것, 이것을 '이승'이라 하고 번뇌가 생기지 않는 것, 이것을 '큰 열반'이라고 한다.

번뇌의 근본인 이 무명을 뿌리뽑기 위해 간화선에서는 공부하는 사람이 화두와 하나가 되어 능소(能所)가 사라지게 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한다. 이 깨달음이 '큰 열반'인데, 이것을 얻고자 번뇌를 없애 나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승(二乘)'이라고 한다. 이승(二乘)에서 승(乘)은 '사람을 태워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탈것'을 말한다. '중생을 태워 생사의 바다를 건너 주게 하는 법'을 비유한 것인데, 이 내용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이승이라고 한다. 이승은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을 말하기도 하고, 다시 소승을 성문승(聲聞乘)과 연각승(緣覺乘)으로 나눈 것을 말하기도 한다. <법화경>에서는 일승(一乘)과 삼승(三乘)으로 말한다. 부처님께서 평생 말씀하신 법을 '대승'

#### 시비분별이 남아 있다면 '이승' 팔만사천 법문 드러나야 '열반'

과 '소승'으로 나눌 때, 성문과 연각을 위한 법이 소승이고 보살을 위한 법이 대승인데 이 대승을 보살승이라 하기도 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법을 직접 듣고서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제(四諦)의 이치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성문승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홀로 심이인연의 이치를 관철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연각승이라고 한다. <법화경>에서는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을 합쳐 삼승이라 하고, 법화회상에서 이 삼승을 한꺼번에 모아 바로 부처님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일승이라고 한다. <선가귀감> 31장에서 말하는 이승은 소승을 포함한 보살승까지이다.

열반의 본디 뜻은 '불을 훑 불어 끄' 또는 '타오르는 불이 꺼져 재만 남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이 '활활 타오르는 번뇌'가 다 연소

되어 사그라진 상태'의 뜻으로 바뀌어서 깨달음을 완성했다는 말로 쓰인다. 깨달음을 완성하여 더 이상 없앨 번뇌가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 '큰 열반'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최종적으로 실천되고 완성되어야 할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 열반은 불교의 영원한 진리로서 변하지 않는 삼법인(三法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삼법인은 무상(無常), 무아(無我), 열반을 말한다. 불교 이외의 다른 교파에서 열반이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크게 다르다. 또한 불교 자체 내에서도 대승과 소승에 따라서 열반을 다양하게 해석한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斷者 能所也 不生者 無能所也  
번뇌를 없애 나간다는 것은 경계가 능(能) 소(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번뇌를 일으킬 '나[能]'가 없으므로 내가 일으킬 '번뇌[所]'도 없기 때문이다.

선종에서는 시비와 분별을 일삼는 사람들을 경멸한다. 시비와 분별이 바로 번뇌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였더라도 시비와 분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아직 '이승'의 경계를 뛰어넘지 못한 것이다. 조사스님들은 이승의 분별을 바로 아시기에 단숨에 이를 뿌리 뽑으라 가르친다.

그래서 허상에 얽매어 알음알이를 내지 말고 그 근본 바탕을 바로 보라고 이른다. 그 근본 바탕에 마음을 맞추어서 그것과 하나가 되라고 한다. 근본과 하나가 되어 '나[能]'가 사라지고 '마주 보는 경계인 근본[所]'이 사라질 때, 비로소 능소(能所)가 사라져 모든 번뇌가 없어진다. 부처님의 광명이 드러나고 팔만사천법문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 번뇌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마음 바탕에서 세상의 모든 법이 부처님 법으로서 같아진다. 이것이 깨달음이요 '큰 열반'이니, 너와 내가 조사스님이 되고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 원소 스님(송광사 인월암)  
cafe.buddhapia.com/community/wonsu

### 행복동 사람들

욕망의 무쇠술  
배종훈 (bjh4372@hanmail.net)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cafe.buddhapia.com/community/happydong

###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 작업(作業)

일상을 꿈같이 들여다보면, 불교가 얼마나 생활 속에 녹아있는지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있나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지난해 영화계를 술렁이게 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작업의 정석!' 기억나죠? 그런데 여기서 '작업'이 바로 불교용어입니다. 인듯 보면 불교와 연관이 아주 없는 것 같으나, 사실은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 말 그대로 설명하면 '일을 짓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잡아함경>에는 '내 출가의 제자와 재가의 제자는 작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에도도 근심하거나 울거나 성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죠. 여기서 작업은 '깨달음을 위한 수행'을 말합니다. 또 정토사상에서는 극락왕생을 원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실천하는 방법을 일컫기도 하죠. 그리고 수행의 단계를 안심(安心), 기업(起業), 작업(作業)으로 나누고 있죠. 안심을 얻은 이후에 신(身), 구(口), 의(意) 삼업을 통해 오묘론(五妙論), 오정행(五正行)을 하는 것을 작업이라 합니다. 이 작업을 잘 이루어야 좋은 결과를 이루는 셈이지요.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06)

####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 2부 52장 <금강경> 7장 "얻은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다"

6장으로 설명은 다시 한 번 끝났다. 말했듯이 <금강경>은 <반야심경>과 달리, 이야기기가 반복되고 변주된다. 새로운 것은 없다. 지겨운 사람은 그만 책을 덮어도 좋다. 아직 의욕이 남는 사람들도, 혹은 좀 더 분명한 설명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7장이 이어진다.

#### 진리는 어디 있는가

-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아득다라삼막삼보리를 얻었을까? 또 여래가 우리에게 무슨 설법이란 것을 해주었다 할까?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부처님 뜻을 이해한 바로는, 아득다라삼막삼보리란 것은 없습니다. 나아가 여래께서 이것이다 싶게 설법해줄 만한 진리는 없습니다."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耶, 如來有所說法耶, 須菩提言, 如我解佛所說義, 無有定法, 名阿耨多羅三藐三菩提, 亦無有定法如來說.

이 일러주는 뜻밖의 비유를 화들짝 가슴에 새겨두어야 한다. 혜능의 설명을 들어보자. "아득다라, '더없는'이란 형용사는 밖에 주워얻은 것이 아니라라는 뜻이다. 이 찬사는 마음이 무아, 즉 차별의 찌꺼기가 없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대병설야(對病設藥), 붓다의 설법은 중생들이 부딪친 문제를 향해 내려준 처방일 뿐이다. 그런 임의적이고 상황적 처방에 무슨 '이것이다' 싶은 진리의 당체가 있겠는가. "여래가 무상정법, 즉 '더없는 올바른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그렇다, 마음에는 본시 얻은 바가 없다! 그렇다고 얻을 것이 없다고는 못한다! 다만 중생들의 각자 경험과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여래가 그 근기와 성향을 감안하여 중종의 방편으로 깨우쳐 주고 감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제 집착을 떠나게 했다. 그는 일체중생의 망령된 생각이 생멸(生滅)하는 메카니즘을, 그것이 경계를 따라 어떻게 추동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알 생각이 일어날 때, 나중 생각이 이를 알아채야 한다. 알아채 때 그는 그 생각에 머물거나 붙잡히지 않는다. 그때, 견해 혹은 고집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니, 이것이다 싶은 '진리'란게 어디 있어서 여래가 설할 수 있겠느냐. 아득다라삼막삼보

리에서, '이'란 마음에 망념이 없는 것을 말하고, '득다라'는 마음에 교만이 없는 것을, '삼'은 마음이 항상 내적 성재를 유지하는 것을, 그리고 '삼보리'는 마음에 아무런 흔적이 없이 공적(空寂)한 것을 가리킨다. 일념이 마음의 과정에서 문제(頓除), 사라질 때, 그때 너는 불성을 본다." 六祖: 阿耨多羅, 非從外得, 但心無我我所即是也. 祇緣對病設藥, 隨宜為說, 何有定法乎. 如來說, 無上正法, 心本無得, 亦不可言得, 但為眾生所見不同, 如來應體根性, 種種

육조의 이야기를 더 들여보자. '사람들이 여래가 남긴 문자 장구에 집착할까 싶어, 그리고 무상(無相)의 도리를 알지 못하니, 망령되어 알음알이(知解)를 냐까 싶어, '불가귀'라고 했다. 여래는 근기와 국량이 다른 중중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 인성을 썼는데, 거기 무슨 '이것이다' 싶은 진리의 당체가 있었는가. 쫓, 공부하는 학인들이 여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여래가 설한 언설만 들을 외고 있다. 본심을 깨달아 대면하지 못하면 종내 성불은 없다. 그래서 '불

行, 即非法, 口誦心行, 了無所得, 即非非法. 첫부분은 위에 적은 취지와 같다. 그러나 후반부는 좀 다르다. 혜능이 경전을 원문만 남겨두고 자유롭게 해석하는 사례를 여럿 본 바 있는데, 여기서도 그 개성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혜능은 '비법'을 위에서처럼 '진리는 언설로 할 수 없다!'로 고상(空)하게 읽지 않고, 시장바닥의 언어처럼, 즉 '법답지 않다!'로 읽는다. 그는 경전만 외는 것으로 불법을 이루려 하는 것은 모래를 써서 밥을 짓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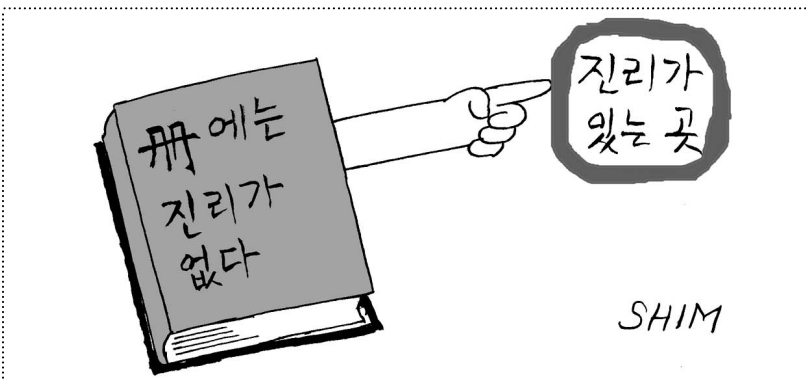
#### 무위법의 개성들

- "왜냐, 수많은 성자와 현인들은 바로 그 '무위법'으로 하여 '차별'이 있게 되었다." 所以者何. 一切賢聖, 皆以無為法而有差別. 이 구절은 까다롭다. '차별'은 두 가지의 미로 새길 수 있다. '성현들은 그들이 깨달은 무위법으로 하여 중생들과는 차별된다!' 그럴 경우, 무위법은 무아, 무상, 무념 등 자아의 분별에 추동되지 않는 완벽한 행동을 가리키게 될 것이다. 실제 <오기해>에 인용된 위역(魏譯)이 그 길을 따르고 있다. 혜능의 해석은 좀 다르다. 그는 '차별'을 성현들 사이의 '개성'과 '급수'로 읽고 있다. "삼승(三乘)은 근기가 달라 이해한 바가 다르며, 깨달음에도 깊고 얕음이 있기에, 그래서 '차별'이라 했다." (三乘根性所解不同, 見有淺深故言差別). 혜능의 해석에 따르면 본문은 이렇게 해석된다. "수많은 현자와 성현들은 무위법을 베이스로 하지만, 그들은 서로 차이가 있다." 대체 어느 쪽 해석이 옳은가.

분명한 것은 혜능이 무위법을 성현에게 독점시키지 않고, 중생들과 공유시켰다는 점이다. "누구나 무위법을 통달하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六祖: 佛說無為法者, 即是無住, 無住即是無相, 無相即是無起, 無起即是無滅, 蕩然空寂, 照用齊收, 豈覺無?, 乃真是解脫佛性. 佛即是覺, 覺即是觀照, 觀照即是智慧, 智慧即是般若波羅蜜多. 혜능은 이 문교의 회망을 분명히 적어두어, 중생의 불성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었다. 이 말에는 이런 함축이 들어있다. "부처와 중생은 없다. 다만 마음의 각성과 유지, 그 정도의 차이만 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cafe.buddhapia.com/community/plan\_14

## 무위법 안의 서로 다른 개성들



가설'이라한 것이다. 임오로만 될 뿐, 마음으로 공부실행지 않으면 '비법'이고, 임오로도 외고 마음으로 공부실행하면 '무소득'을 알게 되는 바, 그것이 '비비법'이다." 六祖: 恐人執著如來說文字章句, 不悟無相之理, 妄生知解, 言不可取. 如來為化種種眾生, 應機隨量, 所有言說, 亦何有定乎. 學人不解如來深意, 但誦如來說教, 不了本心, 終不成佛, 故言不可說也. 口誦心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럼 '비비법'은? 그거야 '법답지 않은 것이 아닌,' 즉 진정 법다운 일이지! "경전을 읽고 마음을 행하며, 그리고 결국 내 마음에 모든 것이 갖추어 있음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 아니겠는가. 독자들은 어느 해석을 좋아하시는가, 어느 해석에 따라 살려 하시는가. 철학적으로 학구적인 무작인가, 아니면 가슴이 뜨끔하도록 짐을 찌르는 혜능인가.